

## 울산광역시 외국인 투자 유치 방향

조재호

사회과학부 경제학 전공

### <요약>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시아의 경제협력, 울산경제의 특징, 울산과 중국간의 무역추이, 최근 외국인 투자추세를 분석하면서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물류 및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경제개발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외국인 투자유치 방향은 제조업에 중심을 둔 거점형 해외투자유치를 적극이용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자원 중심적 동북아 지역 전진 기지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외국인 해외투자유치 보다는 한국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서 제조업 중심의 비교우위가 있는 특정분야를 직접 육성하는 방향으로 울산의 장기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 The Direction for Foreign Investment in Ulsan City

Cho, Jae-Ho

Department of Economics

###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prospects for APEC, the trend of global foreign investment and the characteristics of Ulsan industries and then reviews the recent policy direction for foreign investment proposed by Ulsan city. This paper suggests that Ulsan city should develop the regional development plan based upon the Ulsan citys competitiveness on heavy-and chemical industries. This paper suggests that Ulsan citys plan should establish the foreign investment strategy aiming at the China and Russia markets under the APEC movement.

## I. 서론

중국경제가 급속한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성장엔진으로 대두함에 따라 한국을 동북아시아 지역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발전시키자는 방안이 여러 각도에서 추진되어 지고 있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이란 기본적으로 서비스 주도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특히 물류·금융·IT·연구개발·문화 등 각종 선진국형 지식기반 서비스를 발전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제조업 자체의 고부가가치화와 첨단화도 함께 촉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대표적 산업도시인 울산광역시의 경제발전 전략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울산경제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래 한국경제 발전의 전인차가 되어 왔으며, 비약적인 도시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로 성장하면서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산업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공업기지로 발전하고 있다. 울산지역의 제조업은 2001년도의 경우 2,079개 업체에 132,289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기계금속(32%)·자동차 운송장비(20.8%)·석유화학(9.3%)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공업생산액은 540.9억 달러로 전국 공업생산액 대비 12.2%이며, 교역량은 342.4억 달러로 전국 교역량의 10.3%를 점하고 있다.

울산은 우리 나라의 어느 도시보다도 단기간 내에 급성장한 도시이다. 또한 국가 총량 경제개발에 밀리어 지역경제 차원의 발전계획은 부재한 상태에서 최근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움직임과 중국경제의 급성장으로 울산경제 발전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울산광역시는 대량생산체제에 의존한 기존의 제조업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으로부터 21세기의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울산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는 공장설립형 투자 및 자동차부품산업의 국제마케팅 및 홍보를 총체적으로 지원하고 국제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종합전시 컨벤션 센터 등의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하는 울산 오토프라자 건립조성, 정밀화학 및 지식 기반산업의 계획적 입지를 위한 신 산업단지 개발, 생활편의시설 (대학, 호텔, 병원) 백화점식 해외투자를 지향하고 있다.

울산 경제 구조의 방향을 현재와 같이 물류 또는 지식기반의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맞추면서 21세기에 걸맞은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는가 아니면 한국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서 제조업 중심의 비교우위가 있는 특정분야를 직접 육성하면서 그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환경의 변화와 울산의 경제현황을 파악하고 그 경제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 II장에서는 APEC,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울산경제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 III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와 울산경제의 미래에 대하여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울산광역시 외자유치 방향을 제시하였다.

## II. APEC, 동북아 경제 협력과 울산경제

### 1. APEC의 자유무역 추진

세계경제질서는 WTO-IMF체제의 범세계주의(Globalism)와 유럽연합(EU:European Union)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으로 대표되는 지역

주의(Regionalism)가 공존하며 발전해 가고 있다. 한편 아·태지역에서도 1989년 아·태경제협력체(APEC)가 창설되었으며 APEC 회원국간 경제협력의 가시적인 추진은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제 2차 정상회의 이후 역내 무역자유화가 제시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보고르 선언의 주요내용은 APEC을 2개의 그룹, 즉 선진권그룹과 후진권그룹으로 나누어 선진권은 2010년, 후진권은 2020년까지 자유무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계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APEC가 제시하는 역내 자유무역이란 가맹국간에는 관세 또는 수량적인 무역제한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경제통합의 발전 단계상 가장 초기의 경제통합 형태를 의미하고, 이것이 발전하면 관세동맹, 경제통합으로 나아가게 된다. 역내 자유무역의 효율성은 경쟁적인 경제간의 무역확대인가 보완적인 경제간의 무역확대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히 경쟁적인 관계에 있을 때, 회원국의 숫자가 많을수록, 회원국간 경제적인 거리가 가까울수록, 회원국간 경제적 거래규모가 클수록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역내 자유무역의 결성으로 시장의 확대되어 그로 인한 규모의 경제에서 통합의 이점을 찾고 각 가맹국경제가 상호보완관계에 있을 때 특화의 기회가 많고 대량생산의 가능성도 높아 효율성이 크게 될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의 경제는 1960년대부터 급격히 발전하여 현재는 세계 최대의 경제력을 가진 초거대시장으로서의 지위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최근 세계 전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세계전체 인구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세계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있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과 NIEs, ASEAN 국가들이 위치하고 있어 미래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경제통합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APEC 역내 회원국간 교역현황에 따르면 APEC의 역내 수출 수입비중이 1984년 이후로 점차 증가하여 2001년에는 약 70%에 달하여 APEC 회원국간 상호의존도 및 무역결합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PEC이 2010년을 목표로 역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므로 회원국간의 자유무역이 점진적으로 실시되면서 역내 회원국간의 경제협력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APEC의 경제통합단계에서 많은 경제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이 한국의 산업기지인 울산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나타날 것이다.

## 2. 동북아 경제협력과 울산

동북아지역은 아·태경제공동체(APEC)의 일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지리학적인 구분은 아니지만 한반도와 중국, 일본, 러시아의 극동지역, 몽고 지역과 대만과 홍콩까지 포함하는 아시아 지역을 일컫는다. 그러나 최근 동북아 경제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동북지역, 일본, 러시아의 극동, 그리고 몽고를 포함하는 협의의 지역을 일컫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경제협력은 지역내 경제협력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리적 범위에 대한 혼란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동북아 경제권의 세계경제 비중은 1990년 16%에서 2010년 27%로, 세계무역에서의 비중도 같은 기간 19%에서 30%로 확대될 전망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은 과거 냉전체제의 정치적 역학관계로 앞에서 논의한 APEC, NAFTA, EU의 지역간 경제협력보다 뒤져 있다. 지금 APEC

내에서는 자유무역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APEC보다 소지역 협력체인 동북아 경제협력은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증진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동북아 경제협력사업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교통, 통신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사업, 황해 및 중국의 발해만을 중심으로 하는 환황·발해연안 및 동해연안에 위치한 지방간 경제교류의 활성화, 에너지 개발 및 환경문제 해결 등과 같은 공동 관련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동북아 경제협력의 잠재력은 다양한 천연자원과 풍부한 노동력에서 찾을 수 있다. <표 1>은 동북아 지역의 천연자원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시베리아와 중국의 석유생산량은 세계 석유생산량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시베리아 및 북한은 세계적인 철광보유국으로서 아시아 철강의 약 90%를 생산한다. 특히 몽골도 세계 10대 자원보유국으로 꼽힐 만큼 풍부한 동정광과 가축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탄 생산국이고 시베리아, 북한 및 일본의 석탄 생산량도 적지 않다. 특히 북한은 철, 중석, 니켈, 구리, 은,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석회석 등의 에너지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세계 최대의 마그네사이트 매장지역이다. 또한 동부 시베리아와 중국 흑룡강은 매우 풍부한 삼림자원의 부존지역이다. 특히 시베리아와 중국은 삼림면적과 임목축적량에서 세계의 1/4를 차지한다.

<표 1> 동북아시아 천연자원 분포

지역	석유	석탄	천연가스	철광석	전력
러시아 (시베리아)	500억~800억배럴	8조6천억톤	86조M <sup>3</sup>	500~2400억톤	860억kwhr
중국 (동북아관련지역)	219억톤	4835억톤	-	8317만톤	3269억kwhr
북한	-	147억톤	-	30억톤	-

자료: 본절 일부 내용과 <표 1>의 내용은 "<http://trut.chungbuk.ac.kr/~jjung/hh103.htm> 동북아 경제협력의 잠재력 및 제약요인"에서 재구성

동북아 지역의 풍부한 부존자원은 향후 동북아 경제협력에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과 일본의 자본 및 기술, 중국과 북한의 노동력, 그리고 북방지역의 자원을 쉽게 결합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막대한 천연자원 및 노동력을 이용하여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것은 자금력, 공업기술력, 정보수집력, 경영기술력, 시장개척능력 등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및 몽골은 자원개발을 위한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자원매장량에 비해 수출량은 많지 않다.

대외적 자원의존도가 높은 울산은 (아래 <표 2>참조) 장기적인 자원공급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므로 동북아지역의 원유개발 및 천연가스 개발에 참여하여 해외자원 수입원 동북아지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물류 및 기타 유발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울산은 외국인 직접투자 및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및 몽골에 어떠한 형태이던지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 3. 울산경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울산은 다음과 같은 특이한 수출,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

다. 울산의 수입 구성을 보면 원유 및 화공약품이 66%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에 있어서도 현대 중공업 (선박)과 현대자동차의 수출비중이 울산수출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수출은 약 34%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에 따르면 울산의 산업구조는 자원을 수입하여 이들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표 2> 울산 수출, 수입의 구성비교(1999)

수입				수출			
순위	계	15,593,105	백분율	순위	계	19,102,889	백분율
1	원유	8,604,591	55.18%	1	석유화학	6,474,836	33.89%
2	화공약품	1,751,702	11.23%	2	자동차	4,914,489	25.73%
3	정광	913,425	5.86%	3	선박(수리포함)	3,091,219	16.18%
4	시설기계류	798,538	5.12%	4	기타	1,948,793	10.20%
5	기타	748,358	4.80%	5	전자제품	1,061,856	5.56%
6	비철금속	732,936	4.70%	6	기계류	554,652	2.90%
7	철강제품	565,152	3.62%	7	섬유제품	514,752	1.42%
8	전기, 전자제품	559,068	3.59%	8	철강제품	271,938	1.42%

자료: 울산세관(울산상공회의소 homepage에 있는 통계자료를 재구성) 단위: 천불

품목별 수출과 수입품목은 공산품 수출이 단연 우위를 지키고 있으며 특히 중화학제품의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21세기의 전략산업인 IT제품의 수출, 수입액은 감소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상당히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참조)

<표 3> 품목구조별 수출, 수입 현황

품목구조별	수출				수입			
	2001	증가율	2002. 1-6	증가율	2001	증가율	2002. 1-6	증가율
총계	19,950,546	-0.1	10,871,911	4.0	18,271,601	28.1	9,056,859	-8.2
1차산품	47,931	-12	66,408	403.3	11,961,296	65.9	5,434,779	-17.9
공산품	19,902,616	-0.1	10,805,504	3.5	6,310,306	-10.6	3,622,080	11.5
경공업제품	262,969	54.3	310,515	209.1	123,448	-10.8	83,289	36.8
중화학제품	19,639,647	-0.5	10,494,988	1.5	6,186,858	-10.6	3,538,790	11
IT제품	977,336	-21.8	478,516	-3.1	203,756	-5.3	101,282	-
기타	18,662,311	0.9	10,016,473	1.7	5,983,102	-10.8	3,437,509	11.3

자료: 한국 무역협회

국가별 수출, 수입은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특히 중국의 수출증대가 2002년 상반기 증가하고 있다. 수입에 있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 참조>). 특히 울산의 대 중국 수출은 2002년 상반기 동안 중국에 14억5,500만달러를 수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1% 증가했다. 이는 울산 총 수출액의 10.6%로 미국에 이어 제2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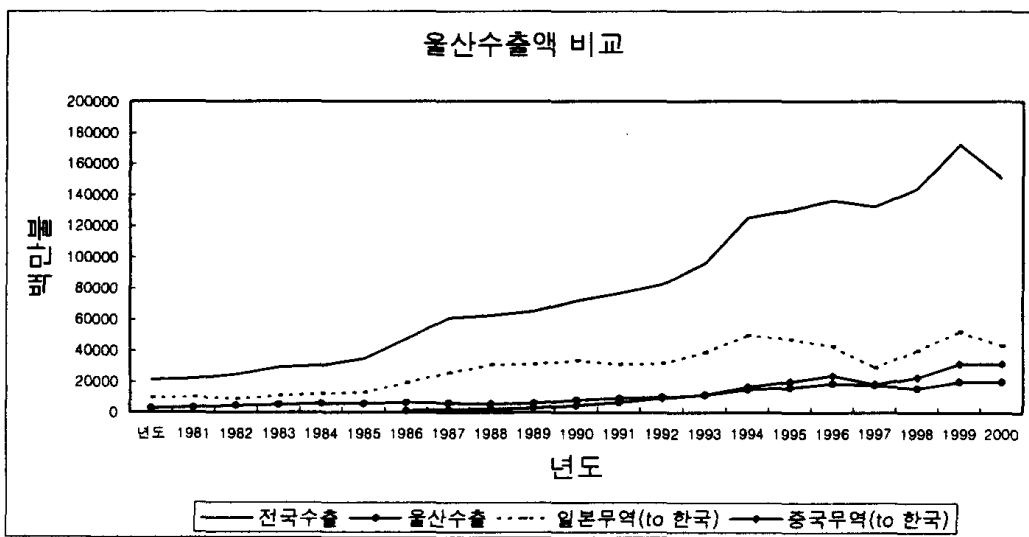
출시장으로 일본을 앞서고 있다. 또 대 중국투자의 경우 울산의 69개사, 74개 현지법인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등 중국에 대한 무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2년도 상반기에 울산의 해외수출은 4.1% 증가에 그친 데 비해 중국수출은 급증하고 있다.

<표 4>국가별 수출 수입 순위

		수출		수입			
		2001	2002. 1~6	2001		2002. 1~6	
순위	국가명	금액	금액	국가명	순위	금액	금액
	합계	19,950,546	10,871,911	합계		8271601	9050420
1	미국	3,570,689	2,146,307	사우디아라비아	1	4980270	2208931
2	중국	2,113,741	1,454,696	일본	2	2045478	1104919
3	일본	2,493,392	990,979	쿠웨이트	3	1241605	583468
4	홍콩	1,020,548	598,709	미국	4	843590	533961
5	파나마	869,584	398,592	오스트레일리아	5	928208	470404
6	싱가폴	296,966	374,584	아랍에미리트	6	1124177	450861
7	이탈리아	376,662	308,770	인도네시아	7	869587	418716
8	캐나다	415,751	277,984	중국	8	443908	282948
9	대만	572,423	231,003	이란	9	604021	262855

자료: 한국 무역협회

<그림 1>은 한국, 일본, 중국, 울산의 수출액을 비교한 것이다. 특히 중국의 무역액(대 한국)과 울산의 수출액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1986년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그림을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림 1> 한국, 일본, 중국, 울산의 무역액 및 수출액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도 수출 2,667억달러 (세계 5위), 수입 2,436억달러 (세계 6위), 외국인 직접투자액 408억달러로 세계자원의 중국이동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2010년대에 세

계 총생산의 20%를 차지하며 미국(16%)을 추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울산과 중국과의 무역증대는 향후 울산 경제발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 울산 경제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울산수출액과 중국의 무역액(대 한국)사이 균형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중국과 교역이 이루어진 1987년 이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공적분(co-integration)관계 및 균형오차 분석(Error Correction Model)을 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본자료: 1987~2001년: 한국주요경제지표(통계청), 무역협회)

장기분석

$$LUX_t = 5.53 + 0.41 LCT_t \quad R^2 = 0.94$$

(20.15) (13.89)

단기분석

$$DUX_t = 0.03 + 0.23 DCT_t - 0.75 u_{t-1} \quad R^2 = 0.68$$

(0.71) (1.79) (-4.03) ((-)-t-통계치)

여기서  $LUX_t$ ,  $LCT_t$ ,  $DUX_t$ ,  $DCT_t$ ,  $u_{t-1}$ 는 각각 Log(울산수출액(t)), Log(중국무역액(t)), 울산수출증가율(t), 중국무역증가율(t), 전기의 잔차(균형오차)를 의미한다. 회귀분석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장기적으로 대한국 중국의 무역액에 대한 울산수출의 탄력도는 0.41이며, 이는 대한국 중국무역이 1% 증가할 경우 울산수출이 0.41%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 회귀분석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며 전체변동의 94%를 설명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도 전기에 울산수출이 과도하게 증대되었다면 (양의 균형오차)울산의 당해의 수출상승률이 감소하여 울산수출은 감소하게 된다. 전기의 균형오차가 1% 포인트 상승하는 경우에 당해의 울산수출액은 0.75%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양 국가간 무역은 급격히 균형에 수렴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양국간의 무역은 표본기간 중에 상당히 안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상 회귀분석 추정결과에 따르면 울산의 수출액과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액은 공적분 관계로 상당 기간동안 이러한 안정적인 추세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울산 경제성장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품 수출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상품과 서비스 무역을 병행시키는 새로운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첫째, 중국의 공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둘째,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이들 서비스부문에 경쟁력 높은 다국적 기업 및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새로운 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울산은 이에 힘입어 과거 누려온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여건이 여의치 못한 경우에는 울산지역 제조업의 경쟁력 악화로 산업공동화가 가속되면서 지방경제가 몰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 III. 외국인 투자와 울산경제의 미래

울산 경제의 장기 발전전략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투자자원이 부족한 지방경제에서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면 단기간에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라 함은 “해외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를 지칭하며, 이중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는 역외국에서 당사국으로 기술과 자본이 들어오는 Inbound Investment를 의미하며, 유치국 입장에서는 고용 및 외국자본의 유입, 선진기술 습득, 수입대체 효과를 통한 국제수지의 개선 등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피투자국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투자를 포트폴리오 투자와 구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 1인이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 10%이상을 취득할 경우 외국인투자자로 보고 있으며, 지분율이 10%이하인 경우에도 합작계약서 등에 의하여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입증되면 직접투자자로 정의되고 있다. 일부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국내 기업을 헐값으로 매각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90년대 이후 세계모든 국가들이 투자유치에 국운을 걸고 전력하고 있으며 2000년 150개국가중 147개 국가가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 1. 최근 외국인 투자동향

외국인투자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투자여건은 경제행정규제 완화 등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sup>1)</sup> 그 주된 이유는 생산요소 시장의 경직성에서 찾을 수 있다. 대형 노동쟁의는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에 대해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자본시장에서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이 뒤떨어지고, 금융조달비용이 주변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토지비용과 국내 각종정보 및 관행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불하는 외국인 비용이 높고, 국내 투자유력업종 및 투자환경에 대한 해외홍보 부족, 일관성 없는 홍보체계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과 아울러 정부정책, 금융산업, 기업문화, 노동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지체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투자하고 싶지 않은 나라”로 인식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01년 외국인투자는 당초 목표치인 150억불에 못 미치는 118.7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세계적 경기침체와 예상치 못했던 미국 테러사태로 인한 급격한 경제활동 위축이다. 2000년도 EIU(Economist誌 산하 경제연구소)는 2001년 전세계 외국인 투자는 32.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미국·일본 경제의 침체, 미국테러 사태 등 불안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당초 전망보다 감소세가 심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2001년도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주요 개도국의 외국투자도 모두 감소하였다.

외국인 산업별 투자비중은 제조업 투자금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도소매·보험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투자금액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조업의 경우 IT 분야의 전세계적 경기 침체에 따라 전기·전자 분야의 투자 부진으로 투자비중이 47.8%에서 21.9%로 감소하였으며 산업지원 서비스 분야는 금융, 통신 분야의 투자 증가로 인하여 투자비중이 41.0%에서 51.8%로 증가하였다. (<표 5> 참조)

1)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3년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사경쟁력 지수는 3.551로 인구 2000만명 이상 3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노사경쟁력은 태국(7위), 터키(12위), 중국(20위), 필리핀(23위) 등 주변 개발도상국 수준에도 못 미쳤다.



<표 5>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 백만불, %)

구분	2001. 1~6		2002. 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가율
1차산업	4	0.1	1	-	△75.0
제조업	1,788	47.8	1,058	21.9	△40.8
서비스업	1,946	52.1	3,779	78.1	94.2
(산업지원서비스업)	(1,532)	(41.0)	(2,507)	(51.8)	(63.6)
(기타서비스업)	(414)	(11.1)	(1,272)	(26.3)	(207.2)
합계	3,738	100	4,838	100	29.4

산업지원서비스업 : 전기 및 가스, 운수 및 창고, 금융, 통신 등

자료: 2002년 6월 외국인투자 동향(산업자원부) [www.mocie.go.kr](http://www.mocie.go.kr)

투자규모별로는 1천만불 이상의 투자비중이 상승하였고, 투자 건수별로는 5백만불 이하의 중소규모 투자건수 비중이 93.5%를 기록하여 전년보다 다소 하락하였다. 규모별로는 1천만불 이상 투자비중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5백만불 이하의 소규모 투자건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6> 참조)

<표 6> 투자규모별 현황

(단위 : 건, 백만불)

구분	1999. 12		2000. 12		2001. 1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억불 초과	8	1,606	4	1,280	5	1,723
1천만불~1억불	13	371	20	502	12	295
5백만불~1천만불	12	81	13	87	6	37
5백만불 미만	259	123	302	108	240	99
합계	292292	2,181	339339	1,9771,977	263263	2,1542,154

자료: 2002년 6월 외국인투자 동향(산업자원부) [www.mocie.go.kr](http://www.mocie.go.kr)

## 2. 울산 외국인 투자유치 방향

2001년도 울산시 외국인 투자의 유치액은 27백만 달러로 전국의 전국 118억달러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경제가 수출지향적 성장정책을 추구해온 결과 울산 산업구조의 형태가 제조업 중심이며 수출주도형으로 외국투자자들과 경쟁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IMF이후 지속적인 원화평가절하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을 회복함으로써 R&D 투자에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지역내 외국투자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 둘째, <표 5>와 같이 서비스업의 해외투자 증대와 제조업분야의 해외투자 감소추세는 중화학공업의 중심지인 울산의 외국인투자 감소와 직결된다. 향후 제조업 분야의 해외투자의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경우 향후 울산시의 해외투자도 감소되어질 전망이다.

울산시 장기 경제발전 전략에서 시급한 것은 외자유치에 대한 목표 설정이다. 외국인 투

자 유치의 목적은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특히 중국경제의 부상에 부합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비스부문에 경쟁력 높은 다국적 기업들을 울산에 유치하여 제조업 중심의 경제체질을 보완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 추진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즉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울산시는 세계적 수준의 영업환경을 조성해주고 또 각종 고급전문인력 및 다국적기업 경영진들의 국내 상주(常駐)를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매우 어려운 과제로서 경제·사회 전반에 걸치는 종합적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 거론 하였듯이 최근의 외국인 투자의 감소 추세와, 울산시의 저조한 외국인투자 실적, 또한 세계적 수준의 영업환경의 부재인 상황에서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는 상당한 제약이 수반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을 포기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울산시의 외국인 투자 유치 방향은 울산지역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과 같은 울산의 외국인 유치에 대한 기본전략을 정리하였다.

### (1) 지역거점형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

중국경제를 겨냥한 아시아 지역의 센터를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하거나 기존 국내 진출기업들의 국내거점을 지역거점(regional center)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Volvo가 삼성중공업을 인수하여, 한국을 건설중장비의 아시아 공급거점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바스프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지역거점형으로 진출했거나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투자한 기업들이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주변국 수출시장까지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기업의 국내생산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 관련산업 즉 중소기업체의 기술고도화와 대기업 중심의 지역거점형 투자와의 접목이 필요하다. 이미 울산광역시에는 경쟁력이 있는 산업(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있으므로 거점형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적극적인 유치마케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요한 외국기업들의 동태에 관한 정보수집, 분석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앞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2010년부터 APEC내의 자유무역이 실시될 전망이다. 이로 동북아 주변국 시장에 대한 고급의 마케팅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 기업들이 중국시장 진출에 다른 어느 나라 기업보다 뛰어난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많은 기업들을 우리나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거점형 투자는 울산 산업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신설투자의 비중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대신 초기에는 M&A로 투자했으나 지역거점화 하면서 증설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 (2) 국제물류에서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허브지향 전략의 추진 한계

울산이 위치한 지정학적인 유리성을 활용하여,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을 이용한 국제물류 면의 허브(중심축)화를 지향하는 전략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접한 부산항과 비교하여 동북아 물류의 허브로 발전시키는 데도 지정학적인 면에서 울산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2002년 네델란드 필립스로부터 11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설립한 LG필립스 디스플레이의 영업본부 (Operating Headquarter)는 한국도 아닌 홍콩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 주고 있다. 현재 한국이 허브로서의 매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하에서 울산시는 더욱더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울산의 국제 물류면의 허브화를 지향하는 전략에는 상당한 제약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수입 및 수출 규모에 맞는 해외자본 유치하면서 자원 중심적 동북아 지역 전진 기지화를 지향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울산 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역거점형 외국인 투자유치와 자원 중심적 동북아 지역 전진 기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특별투자지역의 조성과 높은 언어능력을 갖춘 국제적인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필요하다.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물류센터, 국제업무단지, 국제금융센터 등의 기능을 갖춘 외국인 특별투자지역을 조성해야 하지만 이것에 대한 투자는 인위적으로 프로젝트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에 수반되는 여건과 그 주체가 변천하는 환경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또 슬기롭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울산의 발전을 생각할 때 향후 예상되는 동북아시아 경제의 큰 변화의 특징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울산시는 무지개 빛의 청사진 보다는 보다 실리적으로 울산에 적합한 해외투자를 거점형의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방향이 올바르다고 판단된다.

#### IV. 결론

한국의 제조업의 생산기지인 울산은 대량생산체제에 의존한 기존의 성장지향적 경제전략에서 세계화 및 국제화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물량적 경제성장 전략은 근본적인 한계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도 어려운 실정이다. 새로운 시대에 울산경제가 성공적으로 진입 적응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울산시가 되려면 좁은 의미의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조직 및 사회혁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울산 경제의 향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상품 수출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상품과 서비스 무역을 병행시키는 전략도 필요하지만 제조업은 여전히 산업의 중심이며 21세기의 울산의 개발전략은 제조업에 중심을 둔 거점형 해외투자유치를 적극이용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자원 중심적 동북아 지역 전진 기지화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울산시는 현재와 같은 다양한 해외투자를 유인하기보다는 한국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서 제조업 중심의 비교우위가 있는 특정분야를 직접 육성하는 방향으로 울산의 장기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한국경제 뿐만 아니라 울산경제에 있어서 더 이상 '주변현상'으로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의 중심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주식에 대한 투자와는 달리 실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며 어떤 영향이 울산시에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인가의 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울산시의 경제여건과 정책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이재기, 이요한, 동아시아 연구, 두남, 2001
2. 조재호,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지적 경제통합 움직임과 울산 경제의 미래,” 울산발전연구원 발표논문, 2002, pp. 3-20.
3. Kim, Won Bae,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Role of China, Japan and Kore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ppraisals and Prospects, 2001.
4. Angang Hu, “Proposition for Setting Up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China, HongKong, Japan and Kore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ppraisals and Prospects, 2001.

### 참고자료

[www.metro.ulsan.kr](http://www.metro.ulsan.kr)

<http://trut.chungbuk.ac.kr/~jjjung/hh103.htm>

<http://www.kotis.net>

[www.mocie.go.kr](http://www.mocie.go.kr)